

옥스포드대학 박사가 걸어온 탐구의 길



말레시아에서 온 갈뢰(葛雷)는 28 살때 옥스포드(牛津)대학 유전

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생명기원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는 그로 하여금 더욱더 수련의 길에 들어서게 했으며 인생의 진리를 찾게 되었다.

1. 인생관의 전변

갈뢰박사는 자신의 인생관 전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옥스포드대학에 있을 때 “대기원시보”에서 파룬궁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공법이란 문장을 보고 “전법륜” 책을 웹에서 내려받기했습니다. 2004 년 11 월에 “전법륜” 책을 읽어본후 자신의 인생관이 전변하게 되었으며 인생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해명 되었습니다. 사람의 선천적인 본성은 선량하고 삶의 목적은 반본귀진하는 것이며 “쩐싼런”을 수련하고 공법을 련마하면 신체의 근본이 개변될 수 있어 사람의 원래의 본성으로 되돌아갈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리홍지선생님이 쓰신 “전법륜”과 기타 저서들을 읽고 련공을 견지하여 몸에 있던 소화계통질병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2. 미신인가, 과학인가?

갈뢰박사는 파룬궁은 미신인가, 과학인가 하는 기자의 물음에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사상이 개방된 서양과학자들은 지금 수련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레하면 미국의 위스콘신대학의 신경 학자 리차드-디비이슨은 가부좌하는 사람들의 대뇌처리관리기능구역에 대뇌물질이 비교적 두텁고 사유가 민첩하여 다른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것들을 관찰할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과학은 파룬궁에 대해 완전히 해석 못하고 있지만 파룬궁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문제이며 사람마다 신앙자유의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 80 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파룬궁을 련마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중국대륙에서만 허용하지 않습니까? 만약 중공이 선전한 것처럼 “사교”라고 한다면 왜 외국해외에서는 파룬궁을 금지하지 않고 찬양하고 표창하겠습니까?>

3. 더욱 좋은 사람이 되다

<파룬궁을 접촉한후 어떤 개변이 있습니까?> 라는 기자의 물음에 갈뢰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예전에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싫어했습니다. 수련한 후에 나는 사부님의 말씀대로 사심을 내려놓고 먼저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썩 하면 안해를 보고 화를 냈는데 지금은 부부사이에 모순이 생기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찾은데서 부부의 감정은 잘 융화되었고 동료들과 사업교류할 때에도 자신의 생각을 툭 털어 말하곤 합니다.>

로므니아 첫 공연에서 찬양을 받은 “신문”



지난 4 월 8 일 저녁, 신문 예술단은 로므니아 부쿠레슈티



대극장에서 첫 막을 올려 각계 인사들의 찬양을 받았다.

로므니아 국회의원이며 티미쉬라대학 교장 겸 전자학부교수 파루스-안디(윗사진)는 공연을 보고 <이번 공연은 중국력사이야기를 노래와 춤의 형식으로 중국문화의 정화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으며 중국문화는 전인류 문화의 기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고 말했다.

대만향촌에 전시된 “쩐싼런”미술작품



지난 3 월 25 일 부터 4 월 6 일까지 “쩐싼런”

미술전람회는 대만 화련현길안향립도서관에서 열렸다.

길안향 향장 전지선(田智宣)은 <이번 전람을 향촌에다 꾸렸기에 촌민들도 파룬궁학원들이 창작한 진귀한 미술작품들을 기꺼이 혼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인심을 정화하고 선량한 풍기를 이끌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바라는건 부동한 의견이요>



아이젠하워 장군(왼쪽 사진)은 수하에 한 참모가 있었

는데 참모는 늘 장군의 의견과 달랐다. 어느날 참모는 사직하려고 장군에게 청사했다. <나는 당신과 늘 의견충돌이 생기니

당신은 아마 나를 좋아하지 않을거요. 당신에게 해임을 당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출로를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장군은 깜작 놀라서 말했다. <당신은 어찌하여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소? 만일 나에게 나의 의견과 똑같은 참모가 있다면 그중 한사람은 쓸모없는 것이요. 내가 바라는건 부동한 의견이요.> 나중에 장군은 참모를 권유하여 남게 했다.

정의의  목소리

한 로동교양관리소 관원의 각성

금년의 어느날, 동북의 모시 로교처관원이 사업검사를 하려고 모 로교소로 갔다. 이 로교소에 갇힌 대법제자가 일어나서 본 로교소 경찰대장이 참혹하게 파룬궁학원들을 박해한 죄행을 폭로했고 그 흥수를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법제자의 정념에 감화된 로교처관원은 큰 소리로 말했다. <xxx경찰 대장을 붙잡아 가두시오.>



폭로  박해

연변 박해 소식

박해  악보

연변 악보 사례

■ 최근에 길림성“610”악인들이 연변에 와서 비밀포치를 했는바 지금 유관부문에서는 회의를 열고 파룬궁학원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 연길시하남가파출소에서는 호구를 검사한다는 구실로 주소가 변경된 대법제자를 찾고 있다. 본인이 없으면 그의 가족을 파출소로 불러다가 등기표를 쓰게 하고 있다.

■ 금년 3월 21일 11반 경에 파룬궁학원 리홍염(李红艳)은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박정숙의 검거로 경찰에게 랍치되어 연길시간수소에 15일동안 구류되었다. 그에게 “5서”를 쓰라고 강박한 “610”악인은 그만 거절을 당하자 <구류가 끝나면 너에게 3년판결을 하겠다.> 고 으러냈다.

⊗ 도문시간수소 소장 소전명(邵战明)은 간수소에 갇힌 많은 파룬궁학원들을 갖은 수단으로 박해했다. 레하면 100날 단식하여 거의 죽게 된 파룬궁학원 최명숙(崔明淑)에게 억지로 음식을 주입했다. 나중엔 그를 장춘녀자감옥에 보냈다. 악보를 받은 소전명은 금년 3월말에 뇌출혈에 걸려 죽었다.

⊗ 화룡시 8가자림업국공안국 국보대대 경찰인 단애군(段爱军)은 중공악당의 지시에 따라 수많은 대법제자들을 감시, 랍치, 심문, 구타를 했으며 그가 직접 대법제자를 박해한 사례가 40여건이 되는데 그중 대부분 대법제자들을 로교소에 보내어 박해를 받게 했다. 악보를 받은 단애군은 금년 3월에 심장경색에 걸려 죽었다.

 만화진상을 뜯어고치는
중앙텔레비전방송국



폭력으로 살아가는 중공악당은 자신의 멸망을 앞에 두고 파룬궁학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박해하고 있다. 또한 중공악당은 파룬궁진상을 뜯어고치고 자신을 미화하고 있다.

중공악당은 파룬궁학원들이 “찐싼런”을 수련하여 몸과 마음을 정화시킨 사실을 왜곡하여 “천안문분신자살”사기극을 꾸며냈으며 파룬궁학원들이 정당한 “4.25”상방을 날조하여 천안문을 포위공격한 정치시위라고 악선전했으며 파룬궁학원들이 파룬궁진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정치에 참가한다”고 역설했으며 파룬궁박해에 항의하고 있는 전세계 선량한 사람들을 반화세력이라고 모함했다.



만화: 탈당하여 생명을 구원하자